

18.09.10(월)~18.09.14(금)

1. 전주 주가 추이

단위: pt, 원, 십억원, 배, %

	현재가	Mkt. Cap.	PBR (2018F)	PER (2018F)	ROE (2018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 W	1 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318	1,395,822	1.0	9.4	11.2	1.6	2.6	-4.3	-6.8	-6.0	502	-549	-9	1,913	8,154
KOSDAQ	835	162,096	2.6	19.9	13.5	2.0	9.6	-3.4	-5.9	4.6	100	198	26	497	2,162
보험	16,998	19,155	0.6	8.6	7.2	-1.0	-3.6	-8.0	-16.3	-19.6	-7	-25	7	13	81
증권	1,869	18,826	0.8	9.0	9.3	2.8	9.3	-11.2	-13.1	-5.9	10	4	-3	18	83
삼성생명	92,000	18,400	0.6	8.1	7.1	-1.1	-1.7	-11.5	-21.7	-26.1	-18	13	-1	3	17
한화생명	4,915	4,269	0.4	6.9	5.8	0.6	-1.0	-13.9	-24.7	-28.9	1	-1	1	1	5
ING생명	34,300	2,813	0.8	8.0	9.5	4.4	-5.6	-24.6	-29.4	-35.8	-1	2	-0	1	4
동양생명	6,340	1,023	0.4	9.8	4.3	2.1	-11.9	-13.6	-13.2	-16.6	-0	-0	-0	0	0
삼성화재	258,500	12,246	1.0	11.6	8.7	-3.2	-5.1	0.4	-7.0	-3.2	4	-22	1	4	17
DB손해보험	62,800	4,446	0.8	6.5	13.0	-2.6	-7.8	4.3	-7.5	-11.8	1	-4	5	1	13
현대해상	36,850	3,294	0.8	6.0	14.2	-0.3	-2.3	2.6	-5.4	-21.6	1	-2	2	2	13
메리츠화재	18,550	2,109	1.2	7.8	14.9	1.6	-2.1	-11.5	-14.7	-21.1	3	-4	1	1	5
한화손해보험	6,920	808	0.6	5.5	11.2	1.2	0.3	-0.1	-19.4	-15.0	1	0	0	0	1
삼성증권	31,950	2,853	0.6	7.8	8.1	1.9	1.3	-14.3	-21.7	-12.7	-7	4	-5	1	9
미래에셋대우	8,290	5,457	0.7	9.2	7.9	1.2	8.1	-9.2	-12.4	-9.8	-6	7	-3	6	26
NH투자증권	13,750	3,869	0.8	9.8	8.5	3.8	15.5	-13.8	-5.2	-1.1	8	-3	4	6	23
한국금융지주	71,400	3,979	0.9	7.1	14.3	4.7	9.8	-20.7	-16.4	3.5	5	-0	-4	3	12
키움증권	93,100	2,057	1.1	7.8	16.6	4.5	10.2	-21.1	-15.7	6.3	8	-3	-1	2	10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p>보험업종 약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 약세를 시현하였음. 신흥국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 강도가 약해졌으며 미국 증시의 상승 등에 힘입어 한국의 주가지수가 강세를 시현하였음. 이에 따라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이 약해 졌으며 8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가마감이 언론에 보도되며 3분기 손해보험사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임</p> <p>▶ 8월 자동차보험 가마감 손해율 보도: 삼성은 7월 85.3%, 8월 89.2%, DB손보 7월 85.4%, 8월 86.3%, 현대해상 7월 87.7%, 8월 87.1%로 가마감 보도, 7~8월 단순 평균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폭은 삼성 7.3%p, DB 4.8%p, 현대 9.4%p, 메리츠 6.9%p, 한화 9.1%p임. 7~8월 폭염에 8월 폭우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정비수가 관련 보험료 인상은 10월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를 반영하면 당초 2~3%p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우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치 대비 악화되는 것으로 3분기 실적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보험영업이익 악화시 보험사들이 투자부분을 통해 손익을 방어한다는 점과 정부의 사업비 규제안이 논의되며 8월이후 신계약비(시책) 부담이 크게 완화된 부분이 손해율 악화에 따른 손익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p>
----	---

증권	<p>증권업종 강세 시현: 전주 증권업종은 강세를 시현하였음. 8월에 금리가 크게 하락한 부분이 8월 손익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9월 일평균거래대금이 10조원 수준을 회복하면서 3분기 실적이 당초 우려보다는 좋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전주 후반에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임</p> <p>▶ 대형사 중심으로 IB deal 확대: 대형증권사의 국내 부동산 관련 IB deal 등이 확정되고 있으며 해외 SOC 관련 deal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2분기에도 IB deal이 많았던 증권사의 WM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IB 경쟁력의 WM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시장변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IB 부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p>
----	---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MoM	Quarterly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3Q17		4Q17	1Q18	2Q18	3Q18	QoQ	
	조원	17년대비, %						누계	%						누계	%
일평균거래대금	10.8	18.9	14.3	15.0	12.4	9.0	8.8	10.1	15.7	8.2	11.8	13.8	13.9	9.1	-34.8	
KOSPI+KOSDAQ	6.1	14.7	7.8	9.1	7.5	5.5	5.2	5.7	8.4	5.2	6.0	7.0	8.1	5.4	-33.4	
KOSPI	4.6	25.1	6.5	5.9	4.9	3.4	3.5	4.5	26.5	3.0	5.8	6.8	5.8	3.7	-36.7	
KOSDAQ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11.7	18.5	12.2	12.5	11.8	10.8	11.3	11.7	3.5	8.3	9.8	11.3	11.8	11.7	-1.1	
KOSPI	5.9	32.0	6.0	6.2	6.0	5.5	5.7	5.9	3.8	4.0	4.5	5.4	6.0	5.9	-1.3	
KOSDAQ	5.8	7.3	6.2	6.3	5.8	5.3	5.6	5.8	3.2	4.3	5.4	5.9	5.8	5.8	-0.8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bp
1년	1.78	-4.5	1.85	1.85	1.85	1.83	1.73	1.78	5.0	1.53	1.85	1.89	1.85	1.78	-7.1	
3년	1.96	-15.8	2.22	2.20	2.12	2.13	1.91	1.96	4.7	1.89	2.13	2.22	2.12	1.96	-16.5	
5년	2.12	-21.3	2.49	2.48	2.35	2.36	2.10	2.12	2.0	2.08	2.35	2.43	2.35	2.12	-22.9	
10년	2.31	-18.2	2.72	2.70	2.56	2.57	2.31	2.31	0.0	2.37	2.47	2.62	2.56	2.31	-24.5	
약정 MS	%	17년대비, %p						%	%p						%	%p
삼성증권	6.0	0.0	6.4	6.1	6.0	6.1	6.0	6.1	0.0	6.2	6.0	6.2	6.2	6.0	-0.1	
미래에셋대우	12.5	-0.1	13.2	12.8	12.3	12.4	12.2	12.6	0.4	12.7	13.2	13.3	12.8	12.4	-0.5	
NH투자증권	6.5	0.5	6.4	6.4	6.4	6.5	6.9	6.6	-0.3	5.7	6.4	6.3	6.4	6.7	0.3	
한국금융지주	5.7	-0.1	5.5	5.2	5.1	5.3	5.4	5.6	0.1	6.1	5.8	5.7	5.3	5.4	0.2	
키움증권	17.3	0.8	18.5	18.2	17.9	16.9	17.4	17.6	0.1	15.3	17.4	17.5	18.2	17.2	-1.0	

자료: KOFIA, Check, KRX

4. 금주 전망

보험	<p>금주에도 보험업종은 큰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다만 주가 하락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p> <p>- 전주 8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가마감 발표로 인하여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10월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손해율 급등은 아주 나쁜 면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임</p> <p>- 정비수가 협상이 마무리되고 10월 중 원가인상분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인상될 텐데 최근의 높아진 손해율은 보험사들의 대 정부 협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임. 보험료 인상이 단행되면 4분기에 원가 인상분 반영으로 손해율이 상승하겠지만 2019년에는 보험료 인상효과가 반영되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p> <p>- 전주에도 언급했듯이 시책관련(초년도 지급수수료가 연간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규제로 인하여 3분기 실적 악화는 일정 수준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p> <p>-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총리의 금리 관련 발언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금리의 방향성을 일시적이거나 멈추게 만들었음. 9월말 금리가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4분기 변액보증준비금 부담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월말까지 금리 흐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p> <p>- 여전히 손해보험업종을 선호함.</p>
----	--

증권	<p>전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2,000억달러 부과지가 재 확인되며(준비가 다 되었음, 중간선거 전 협상타결 압박은 없다 등)혼조세를 시현하였음. 다만 신흥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되며 신흥국 환율 급등 속도는 안정화된 상황임</p> <p>- 대형 증권사 중심의 투자는 대외 불확실성에서 불구하고 우리는 추천하고 있음. 우선 거래대금의 바닥은 확인된 상황에서 8월 금리 하락의 영향이 3분기 실적의 부진 가능성을 완화하였고 대형 증권사들의 IB deal 수행은 부진한 시장변수의 영향을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임</p> <p>- 다만 시장변수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주 반등의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p> <p>우리는 증권업종에서 한국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에 대한 선호를 유지함</p>
----	--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9월 17일	EU	소비자물가지수	2.0%	2.0%
9월 18일	일본	BOJ 통화정책성명서		
9월 20일	미국	필라델피아 제조업활동지수	11.9	16.5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p>▶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수수료 경쟁' 불붙었다 (미디어펜) 증권사들의 해외주식수수료 인하 경쟁 또한 점차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수수료 인하는 물론 한시적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까지 등장</p> <p>▶ 미래에셋, '인허가 리스크'에 부동산개발사업 '발목 (건설경제) 멀티에셋자산운용이 추진하고 있는 과천시옥 재개발 용적률이 기존 1100%에서 400%로 조정되어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임</p> <p>▶ 보험사, 해외투자 확대... 상한선 30%에 육박 (한경) 한화생명 27.0%, 동양생명 25.8%, 롯데손보 25.2%, 교보생명 20.8% 등 생명보험사들의 해외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p> <p>▶ 후보형료 얼마나 오를까... 폭염·폭우에 손해율 90%로 ↑ (경향비즈) 삼성은 7월 85.3%, 8월 89.2%, DB손보 7월 85.4%, 8월 86.3%, 현대해상 7월 87.7%, 8월 87.1%로 가마감 보도, 정비수가 관련 보험료 인상은 10월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7~8월은 영업일수가 22일이었으며 9월은 영업일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감안할 필요 있음</p> <p>▶ NH繼, 2년간 국민연금 해외주식 거래 독차지... 하반기엔 미래에셋대우 합류 (아시아투데이) 국민연금의 해외주식거래증권사로 미래에셋대우가 하반기에 NH와 함께 선정</p> <p>▶ [단독] ABL바이오, 자금조달 과정에서 312억 구주매출 (머투) 초기 투자자인 한국투자파트너스가 56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5억원 구주매출, 차익은 3분기 실적에 반영 예정. 한투파의 경우 110억원 투자 후 56억원을 회수하였고 보유주식가치(주당 130만원기준) 770억원이며 한국투자증권은 50억원 투자, 보유 지분가치는 227억원임</p> <p>▶ NH투자증권, 서울스퀘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매경) 대형증권사들의 IB 부분의 성과가 최근 중소형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생각됨</p> <p>[단독] 손보업계, 불법 승환계약 2천건 적발... 제재금만 19억 (대한금융) 메리츠 580건, DB손보 400건, 한화손보 300건, 삼성화재 130건, 현대해상 110건 등임. 13일 오전 제재심의를 열어 제재금 부과 결정을 할 예정임. 과징금의 규모보다는 손보 협회에서 진행한다는 점이 중요한 점임.</p> <p>▶ 금감원 '기업관련 TRS거래 위반 증권사 제재 (뉴시스) TRS거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해하기 쉬운 기사임. 제재수준은 미정이지만 중징계는 아닐 것으로 보도</p> <p>▶ 금감원, 18일 분조위서 즉시연금-암보험 분쟁 결론 내나 (연합인포) 즉시연금 관련해서는 또 다른 약관 유형을 가지고 있는 KDB생명 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암보험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분쟁 사건이 상정될 예정임. 암보험 관련 분쟁은 지난달 국민검사청구가 기각되면서 분조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임</p> <p>▶ 불황형 대출' 심상찮다... 카드론·보험약관대출 가파른 상승(국민일보) 상반기 보험사 약관대출이 지난해 상반기대비 9.0% 증가하였음</p>
----	---

7. Global Peers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 W	1 M	3M	6M	YTD
한국	KOSPI	2,318		1.0	9.4	11.2	3.0	1.6	2.6	-4.3	-6.8	-6.0
	보험	16,998		0.6	8.6	7.2	0.7	-1.0	-3.6	-8.0	-16.3	-19.6
	삼성생명	92,000	16.4	0.6	8.1	7.1	0.7	-1.1	-1.7	-11.5	-21.7	-26.1
	한화생명	4,915	3.8	0.4	6.9	5.8	0.4	0.6	-1.0	-13.9	-24.7	-28.9
	ING생명	34,300	2.5	0.8	8.0	9.5	1.1	4.4	-5.6	-24.6	-29.4	-35.8
	동양생명	6,340	0.9	0.4	9.8	4.3	0.3	2.1	-11.9	-13.6	-13.2	-16.6
	삼성화재	258,500	10.9	1.0	11.6	8.7	1.3	-3.2	-5.1	0.4	-7.0	-3.2
	DB손해보험	62,800	4.0	0.8	6.5	13.0	1.2	-2.6	-7.8	4.3	-7.5	-11.8
	현대해상	36,850	2.9	0.8	6.0	14.2	1.2	-0.3	-2.3	2.6	-5.4	-21.6
	메리츠화재	18,550	1.9	1.2	7.8	14.9	1.4	1.6	-2.1	-11.5	-14.7	-21.1
	한화손해보험	6,920	0.7	0.6	5.5	11.2	0.9	1.2	0.3	-0.1	-19.4	-15.0
	증권	1,869		0.8	9.0	9.3	1.0	2.8	9.3	-11.2	-13.1	-5.9
	삼성증권	31,950	2.5	0.6	7.8	8.1	0.9	1.9	1.3	-14.3	-21.7	-12.7
	미래에셋대우	8,290	4.9	0.7	9.2	7.9	0.7	1.2	8.1	-9.2	-12.4	-9.8
	NH투자증권	13,750	3.5	0.8	9.8	8.5	0.9	3.8	15.5	-13.8	-5.2	-1.1
	한국금융지주	71,400	3.5	0.9	7.1	14.3	1.1	4.7	9.8	-20.7	-16.4	3.5
	키움증권	93,100	1.8	1.1	7.8	16.6	2.3	4.5	10.2	-21.1	-15.7	6.3
일본	Nikkei225	23,095		1.7	16.2	10.6	2.1	3.5	3.7	1.1	6.5	1.4
	보험	1,015		0.8	10.4	7.0	0.9	2.6	-0.9	-3.6	4.4	-4.3
	Dai-ichi Life Holdings	4,567	28.9	2.5	53.2	4.7	2.6	5.3	5.6	13.7	16.4	55.5
	Japan Post Insurance	2,524	13.5	0.7	16.5	4.6	0.1	3.3	6.8	2.6	-3.3	-4.7
	Tokio Marine Holdings	5,193	34.7	1.0	14.2	7.3	1.1	1.8	-0.6	-6.8	5.0	1.0
	증권	395		0.8	10.3	7.1	0.6	3.5	4.5	-3.7	-7.6	-9.0
	Nomura Holdings	523	17.0	0.6	7.2	9.0	0.6	3.0	4.4	-7.7	-18.0	-21.4
	Daiwa Securities	679	10.3	0.9	10.5	8.6	0.6	4.8	6.7	4.6	-3.1	-4.0
	SBI Holdings	3,190	6.4	1.6	13.9	11.9	1.2	5.8	15.7	4.9	24.9	35.4
	Hang Seng	27,286		1.2	11.1	13.0	1.2	1.2	0.3	-10.0	-13.4	-8.8
중국/홍콩	상해A주 지수	2,808		1.2	10.8	12.2	1.1	-0.8	0.5	-11.3	-18.0	-18.9
	보험	136		1.2	10.6	11.1	1.9	0.3	-2.5	-17.1	-25.6	-24.6
	China Life	17	80.0	1.2	10.4	12.0	1.4	0.2	-8.2	-22.8	-27.5	-31.0
	Ping An Insurance	75	171.1	2.2	11.7	19.8	2.0	0.8	9.2	-5.2	-15.3	-7.3
	AIA	65	99.7	2.3	18.8	12.7	2.5	1.2	-3.1	-6.9	-3.5	-2.8
	증권	84		1.1	16.4	6.9	11.5	-1.5	-1.7	-18.8	-30.8	-33.3
	CITIC Securities	13	26.3	0.9	11.4	8.1	2.0	-2.1	-6.5	-28.0	-28.9	-18.4
	Haitong Securities	7	13.2	0.6	8.9	6.8	1.6	3.2	0.8	-22.2	-36.0	-37.2
	Huatai Securities	10	16.1	0.7	9.7	7.7	1.9	-3.3	-10.3	-26.1	-35.8	-33.0
	S&P500	2,905		3.3	18.0	18.2	3.5	1.2	1.9	4.5	5.6	8.7
미국	보험	394		1.4	12.2	10.8	1.5	0.8	1.7	2.7	-1.9	-2.1
	AIG	53	47.3	0.7	11.9	6.8	0.8	-0.8	2.2	-3.6	-2.6	-10.6
	Metlife	47	46.3	1.0	8.9	10.3	0.7	1.8	3.7	0.5	-0.9	-8.0
	Prudential Financial	100	41.6	0.9	8.2	11.7	0.6	1.6	3.7	1.3	-8.0	-13.2
	증권	202		2.1	14.7	13.2	1.2	0.5	0.8	-4.2	-6.9	-0.5
	JP Morgan	114	381.5	1.6	12.4	13.4	1.3	-0.7	-0.2	5.2	-1.5	6.1
	Goldman Sachs	229	89.9	1.1	9.3	12.8	1.0	-2.0	-0.0	-1.2	-14.0	-10.0
	Charles Schwab	51	69.1	3.7	20.9	18.8	1.3	2.0	1.8	-8.8	-8.0	-0.4
	MSCI Europe	127		1.7	14.3	10.5	1.0	1.1	-0.9	-3.0	-0.0	-3.2
	보험	74		1.1	10.6	12.8	1.0	1.0	0.9	0.1	-4.0	-3.1
유럽	Allianz	186	93.0	1.2	10.5	11.8	0.8	2.4	1.0	3.1	-1.4	-2.9
	AXA	22	62.5	0.8	8.9	8.8	3.8	1.6	3.5	2.5	-1.9	-10.5
	Prudential plc	1,706	57.8	2.5	11.3	22.7	0.5	1.5	0.1	-7.2	-12.2	-10.5
	Munich Re	184	32.0	1.0	10.6	9.1	5.5	-0.2	0.9	0.9	-1.7	1.6
	증권	71		1.1	14.2	6.5	0.3	0.9	0.5	-1.9	-8.4	-9.9
	UBS	16	60.2	1.1	10.7	9.3	0.5	-0.3	0.9	0.5	-11.6	-11.6
	Credit Suisse	14	38.3	0.8	12.3	6.8	0.3	0.3	-2.0	-5.8	-14.9	-15.6
	Deutsche Bank	10	23.5	0.3	24.9	0.7	0.1	1.7	-0.1	3.1	-23.4	-38.4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775	1.723	1.785	1.851	1.908	1.853	5.2	-1.0	-7.6	-13.3	-7.8
		3 Year	1.957	1.912	2.060	2.225	2.267	2.134	4.5	-10.3	-26.8	-31.0	-17.7
		5 Year	2.122	2.075	2.285	2.500	2.505	2.347	4.7	-16.3	-37.8	-38.3	-22.5
		10 Year	2.310	2.262	2.495	2.710	2.711	2.467	4.8	-18.5	-40.0	-40.1	-15.7
일본	국고채	1 Year	-0.111	-0.110	-0.112	-0.131	-0.142	-0.145	-0.1	0.1	2.0	3.1	3.4
		10 Year	0.118	0.113	0.112	0.043	0.050	0.048	0.5	0.6	7.5	6.8	7.0
중국	국고채	1 Year	2.911	2.853	2.824	3.237	3.296	3.834	5.8	8.7	-32.6	-38.5	-92.3
		10 Year	3.677	3.645	3.563	3.650	3.859	3.902	3.2	11.4	2.7	-18.2	-22.5
미국	국고채	1 Year	2.554	2.507	2.407	2.308	2.034	1.732	4.7	14.7	24.6	52.0	82.3
		10 Year	2.996	2.939	2.899	2.935	2.817	2.405	5.7	9.7	6.1	17.9	59.1
유럽	국고채	1 Year	-0.540	-0.535	-0.552	-0.573	-0.576	-0.611	-0.5	1.2	3.3	3.6	7.1
		10 Year	0.450	0.387	0.327	0.426	0.593	0.427	6.3	12.3	2.4	-14.3	2.3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